

## 예배의 전통 속에 담긴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장치, 성찬과 성서정과

### Traditional Legacies for Reformed Life Theology in Liturgical Tradition, the Eucharist and the Lectionary

김순환(Soon Whan Kim)  
서울신학대학교, 예배학

#### I. 서론

오늘날 시대의 변화와 발전 속에서 교회가 처한 상황은 과거보다 훨씬 미묘하고 복잡해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응하는 교회의 신학적 반응도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기독교 신앙은 분명 그 안에 본질적이고 불변적인 정체성을 전제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시대적 양태는 그냥 정체된 채 머물러서는 안 되는, 동적 성질의 것이 되어야 하기에 시대적 조류에 따른 다채로운 신학적 논구와 전개는 일면 이해할만한 것이며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정체가 발전적 성장을 요하거나 시대적 환경에 따라 변질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자체로 완전하며 불변적 특성을 지닌다. 과거 진리였던 언명들이 오늘에 와서 새로운 검토와 수정을 요하거나 그것의 불완전성이 드러나 뭔가 새로운 첨가와 보완이 있어야만 하는 류가 아니다. 단지 사람들이 새롭게 처한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른 매개 수단의 변화를 필요로 할 뿐 본질의 변화 혹은 수정이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노력과는 무관하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불변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변질도 문제이지만 또 다른 점은 신학의 본래적 목적이 개인 혹은 공동체의 삶 안에서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탄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문성을 내세워 지나치게 사변적이 되거나 지적 유희에 빠져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 붓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신앙은 실천적이어야 하고 신학 또한 그에 맞는 도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향성과 괴리가 점차 커가고 있다는 비평을 빈번히 듣고 있다. 비록 시대와 상황의 변화가 표현의 유연성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신학은 분명 그 본질적 정체성이 끊임없이 재확인되지 않고는 지켜낼 수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하겠지만 또 실천 지향으로 그 구체적 방향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살아 움직이는 실천적 특성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신학은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런 관점에서 신학계 혹은 교계 안에 간혹 적지 않게 발견되는 이런 현상 앞에서 작금의 교회 신학의 정체성을 검토하고 그 방향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 개혁주의생명신학회가 모색하는 새롭고도 진지한 학술적 노력들은 시의에 적절하면서 의미 있는 것이라 본다. 필자의 관점에서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은 크게 보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이면서 둘인, 두 측면이 그 지향하는 바라는 생각이 든다. 즉 하나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것을 실천적인 것으로 되살려 내고자 하는 지향성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불변적 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에 응집되어 있다. 그의 본질, 대속, 그의 인격과 삶에 대한 신앙, 그 신앙으로 말미암는 생명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변 속에, 이론적 자아도취 속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며 실천 속에 끊임없이 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혁주의생명신학회의 신학적 지향성을 이해하면서 본 논문에서는 특별히 예배의 전통 속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차원, 즉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장치와 그것의 실천적인 특성들을 살펴봄으로써 먼저 이런 가치들이 기독교 신앙의 기원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것의 회복이 우리 신학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게 하는 중요한 바탕이 됨을 증명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실천적 신학으로서의 역동성을 가지게 만든 전통적인 장치들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것들이 어떻게 가능해 오거나 지금도 실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의 신앙과 신학 안에서 개혁주의생명신학적 의미를 구현하기 위한 예배신학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 개혁주의생명신학적 양 측면, 정체성의 확인과 실천적 특성의 강화

### 1.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정체성: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셔리 구스리에(Shirley C. Guthrie)는 '신학의 과제'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제(小題) 안에서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sup>1</sup>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다면 기독교의 신학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를 보라. 만약 당신이 인류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리

1) Shirley C. Guthrie, 「기독교신학입문」, 김영선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8), 33.

스도를 보라. 만약 당신이 세상과 당신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알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보라. 기독교 신학을 통하여 보면 그리스도와 그의 일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관한 모든 진리를 향한 열쇠이다.

이어서 그는 '신학의 과제'의 또 다른 소제인, '성서'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sup>2</sup>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부에 서 있는 한 인물을 알게 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약성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충분히 말씀하고 있다. 신약성서 전체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적인 비밀이 감추어져 있으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구스리에의 말은 결국 신학과 성서의 중심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고 있다. 신약성경은 그들의 예배와 실천과 선교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었음을 보여준다.

마태복음은 그 처음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마:1)라는 선언과 함께 시작하여 그 예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으며(18), 모든 민족에게 그의 모든 가르침을 전하라(19)는 선교 명령으로 마감한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1:1)로 시작하여 결국 그가 십자가 사건을 거쳐, 부활하였으며, 그

---

2) Guthrie, 「기독교신학입문」, 34-35.

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천명하면서 마지막 장을 마친다.(16:6-8,16)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구주로 나신(2:11)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삶을 치밀히 살핀 뒤 이를 알리기 위해 필을 들었음(1:1-4)을 알리면서 편지를 시작하여 구약의 전체가 바로 그를 증언하는 것(24:44)임을 확인하고 이로 인한 초대교회의 감격(24:52-3)으로 마친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으로 진술하고 있으며(요 1:1), 그가 창조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1:3), 생명임을(1:4) 선언하면서 시작하여 그 마지막 장도 그에 관한 수없이 넘치는 사역에 대한 증언(21:25)을 다 기록하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마무리된다.<sup>3)</sup>

초대교회의 선교적 열정 안에도 이런 중심 주제는 반영되고 있다. 교회의 첫 시작이라고 알려진, 부활 후 오십일 쯤 되던 주일 아침의 예배 가운데서 그곳에 운집한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 모두를 향해 베드로는 구약성경의 역사 속을 관통하며 내려온 예언의 완성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임을 선포한다.(행2:1-36)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널리 세상을 향하여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가운데 나타난 여러 제자들의 선교 기록 가운데 빌립의 사적 또한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구약의 예언적 가르침 속에 지시된 인물이 다름 아닌 예수임을 가르친다.(행8:26-39) 더구나 이방의 사도로 알려진 바울은,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듯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되심의 유비를 통해 그가 곧 교회의 주인이심을 기록하고 있다.(엡1:22; 골1:18)

3) 특히 요한복음은 성경과 초기 기독교회의 개혁주의생명신학적 중심 주제를 밀도 있게 반영하고 있다. 생명이라는 어휘가 복음서 서문에 등장하며(1:4), 거의 전 장에 걸쳐(1, 3, 4, 5, 6, 8, 10, 11, 12, 14, 17, 20) 출현하며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물론, 그의 사역, 이적, 교훈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중심적인 어휘로 쓰이고 있다. Cf. 최갑중, “개혁주의생명신학의 당위성과 방향,” 『생명과 말씀』 1 (2010 봄): 90.

성경을 넘어서서 이어진 교회의 전승 속에서도 이런 주제는 뚜렷하다. 이는 교회가 교회 됨을 알리는 주요 지표이기도 했다. 즉 교부들의 '신앙의 규범(regula fidei)이나 사도신경 등은 그것의 주요 근거들이다. 그 주요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창조된 일과 또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 및 의인과 악인을 향한 심판 등이다.<sup>4</sup> 사도적 전승 내에서 보여주는 특이한 점은 신앙 규범과 관련하여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제가 여타 신론, 성령론, 및 교회론 등과 견주어 볼 때 훨씬 중심적인 무게와 분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비해서 후대에 신경 등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성령론이 빠져 아예 빠져 있다는 점은 흥미마저 자아낸다.<sup>5</sup> 이는 성령론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불필요하게 여기거나 등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기독교 신학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가 핵심 요체였음을 시사한다.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면서 여러 각도에서 이를 묘사해 준다. 윌리엄 스코트는 종교개혁의 선봉적 역할을 한 루터 신학의 정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1:17)에 대한 그의 이해 속에 들어 있다고 보고 그의 의인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sup>6</sup>

루터의 의인교리란 인간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simul justus et*

4) Irenaeus, "Irenaeus against Heresies," in *The Ante-Nicene Fathers*, vol. 1 (Grand Rapids, Michigan: Wm.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7), 330-31.

5) Irenaeus, "Irenaeus against Heresies," 130-31.

6) William A. Scott, 「개신교 신학 사상사」, 김쾌상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19-20.

*peccator*)이라는 교리였다. 한 면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자신으로서는 죄인으로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다른 한 면으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의롭게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신앙 속에서 오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된다.

루터 신학을 관통하는 칭의(稱義)의 근거가 그리스도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루터는 1535년, 갈라디아서 주석 서문에서 그의 '신학적 사고'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그것을 통하여 흘러가고 흘러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파악한 지혜는, '연약하고 불품없는 기초원리 몇 개의 파편'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다.<sup>7</sup> 한철하는 「기독교강요」 3권의 내용을 살피면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점이 a.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 b.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음으로 얻는 유익 c.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 몸에 미치는 결과 등이라고 정리하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소개한다.<sup>8</sup> 한영태에 따르면 웨슬리의 성결론 또한 그 중심이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성결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과 그리스도의 행하신 대로 걷는 것, 그것은 그의 마음의 어느 부분만이 아니라, 그 전부를 품으며, 여러 점에 있어서나 대체로가 아니라, 모든 점에 있어서 그의 행하신대로 행

7) Bernhard Lohse, 「마틴 루터의 신학: 역사적, 조직신학적 연구」, 정병식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310.

8) 한철하, "칼빈신학과 신학공관," 「칼빈의 신학과 한국교회의 과제」(수원: 합동신학대학원, 2002), 75-77. 인간론적 관점에서의 그리스도 중심성에 관한 자료로 정광덕, "제2의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한 칭의와 성화," 「성경과 신학」 29 (2001): 335-71 참조.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sup>9</sup> 결국 종교개혁 1세대 혹은 차세대의 주요 개혁자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중심성은 거듭 재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기독교 신학의 다양한 주제(論)들 가운데서 유독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만을 두드러지게 보려하는 것은 일반적 시각에서는 다소 무리하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기독교 신학적 관점에서는 결과적으로는 타당성에 훨씬 무게가 실려 있다. 이런 판단은 단지 신학만을 가지고 말할 때에는 나름대로 객관적 이의 제기로 보일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 전통은 또 다른 축과 관련성 속에서 논의될 때 비로소 균형 있게 보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축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 교리적 내용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다는 시각은 통시적으로 나타난 예배와 성례전의 역사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은 그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그러면서도 강력하게 묘사되고 실행되어 왔던 것이다. 이런 점은 신학과 신앙의 실제적인 표현 틀이 바로 예배였음을 인지할 때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론적이거나 추상화된 본질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에는 그 내용들의 우선순위나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들이 빈번하고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중심이 되는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나올 장에서 상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

9) 한영태, 「웨슬리의 조직신학 II」(서울: 성광문화사, 2008), 78-79. 웨슬리는 칭의교리의 일반적 기초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으며(히2:9), 이전의 죄들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고후5:19) 그리고 이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칭의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롬 5:18)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인하여 즉 그 아들이 우리 위해 하신 일 또 우리를 위하여 피로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단 한 가지의 조건으로(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신 것이지만) 우리의 죄로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다시한번 받아들여 주시며, 장차 올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이제 영적 생명으로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Cf. 한국웨슬리학회 편, “믿음에 의한 칭의”, 『웨슬리설교선집』 1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97-99.



## 2.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실천적 특성: 사변 혹은 학문을 넘어선 실천과 체험

기독교 신학은 간결하게 진술하자면 ‘예수생명운동’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가 과연 생명이나?’ 여부를 놓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 마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진리 탐구 작업인 양 시간과 정열을 허비함이 아니다. 또 ‘예수에 관하여’ 어떤 지식을 갖추는 것이 복음 경험의 본질적 전제인양 온통 거기에 에너지를 바치는 일도 아니다. 더구나 ‘예수의 정신’에 관한 원리적, 학문적 체계화도 아니다. 오히려 ‘예수생명운동’이라는 말은 이미 완성되고, 확인되고, 또 체험된 구원의 ‘사건’을 지금 여기서 현재화시키기 위한 매우 명확하며 실제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그렇게 보면 신학은 새삼스럽지만 무엇보다도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만 간결하여야 하고 동시에 현장 적용적인 실천적 특성을 끊임없이 견지하는 일에 진력해야 한다.

필자는 한국복음주의학회에서 발표한 한 논문에서 교회 연합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새로운 시대의 신학 패러다임으로서 실천신학적 방법론을 성찰한 바 있다.<sup>10</sup> 여기서 다루어진 내용들 가운데 두 가지만 소개하자면, 우선 신학은 경험 현장의 신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천신학이 이론 신학의 결실들을 단지 응용하는 정도로 그치거나 비판을 통한 재구성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실천신학이 다른 신학과의 동등한 위상 속에서 독자적인 철학을 가지고 비판적인 태도를 통

10) 여기에서 세 가지를 특별히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a. 가치평가적인 실천신학의 위상: 이론신학의 응용이 아닌 경험 현장의 신학 b. 기독교적 정체성을 품고 귀납법적으로 신학하기: 신학의 실천에서 교리적 명제 확인으로 c. 동태적 실천신학: 변화하는 정황과 대화하는 신학 등이었다. 김순환,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실천신학적 성찰과 제언”, 『신학과 실천』 26/1 (2011 봄): 7-34.

해 이론신학과 현장과의 변증법적 합의 도출을 거듭하면서 수정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장에 눈을 감는 어떠한 이론적 논구도 결국 신학의 생명력의 존속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어서 귀납법적 신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신학이 인간의 실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에는 사소한 차이로 투쟁을 불사하는 사변과 이론의 차원들이 무색하여지고 오히려 본질적 경험들에 관심하게 되거니와 결과적으로 더 실제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게 때문이다. 기독교적 경험 내의 인간 실존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명분이 아닌, 귀납법적 진행은 훨씬 문제의 본질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신학이 정말 생명력을 견지하는, 실천적 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동태적(動態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혹 신학은 교리적인 엄격성이나 역사적 전통의 축적된 무게에 짓눌려 실천 현장과는 거리가 먼 정태적(靜態的)인 이론적 사변화에 모든 것을 걸고 분투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이론화는 신학이 가리켜야 하는 진리를 화석화 시키고 말 것이며 교리적 엄수만이 능사로 알고 거기에 머물 때 신학의 현실 적용성은 현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적어도 복음의 진수가,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성의 형태로 나타났다면, 그리고 그 생명의 시체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확신이 분명하다면, 그 사건의 재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을 현실 안에 어떻게 전하고 나누느냐를 위해 고심하고 전략을 위해 부심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신학의 생명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 역동성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신학의 실천성 상실의 배경적 원인과 그 회복을 모색하면서 은준관은 알렉산더 슈메만(Alexander Schmemmann)의 예배와 신학의 관계에 대한 유

형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우선 슈메만은 바람직한 예배의 모습으로 교부 시대형(patristic type)을 들었는데 이 시기에는 예배와 신학의 유기적 연관성이 있었고 따라서 예배경험이 신학을 위한 자연 환경이요, 원천이요, 규범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예배경험을 떠난 신학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유형에서는 예배경험을 배제한 채 예배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사변적으로 성찰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본다. 이와 대조적인 것이 중세에 나타난 스콜라 시대형(scholastic type)인데 이는 신학의 원천이고 규범이었던 예배가 이제는 신학의 객관적인 연구 대상으로 전락하는 계기였다고 본다. 말하자면 예배가 그만 신학이 설정하는 틀과 사변적 범주에 의해 좌우되고 마는 시대였다는 것이다. 이어서 예배의 본래적 모습의 회복만이 모든 의식주의, 경건주의, 심리적, 신비적 굴레로부터 예배를 해방시켜 본연의 신학적 정체성의 재조명을 가능하게 함을 주장하였다고 소개한다.<sup>11</sup>

신학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역동성을 가질 수 있음은 예배의 건강성에 좌우된다고 보는 슈메만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본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는 예배의 건강성과 그것의 생명력이 깊이 연관되어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 생명력이란 예배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가 적절히 확인되고 재요약되느냐의 여부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폰 알멘(J. J. von Allmen)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sup>12</sup>

교회의 예배는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주요한 사건을 요약한 것이며 이것은 전체 구속의 역사를 내포하는 있는 것이다...요약(recapitulation)은 일반적으로 “요약”이나 “확인” 또는 “반복” 이상의 것이다. 이런 의미에

11)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232-34.

12) Allmen, J-J. von, 「예배학원론」, 정용섭 외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9), 28-29.

서 이 말은 예배가 그리스도께서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하는 구속의 역사의 과정을 영원히 새롭게 요약하고 확인하며 또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로 그의 일을 수행하시는 일을 요약하고 영원히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말이다.

여기서 확인되고 요약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서 과연 예배 내에 그런 불변적 장치가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나치게 설교자의 주관적 해석과 주장에 의해 예배는 사변적, 이론적 범주에 국한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 이상이며 또 그런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예배는 바로 실제적 구원 사건을 단순한 도덕강론이나 이론으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하고 그 생생한 사건을 직접적으로 회중에게 경험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이를 위해서 그런 장치는 초기부터 있어왔던 것인가?

### III. 예배의 개혁주의생명신학적 장치: 성찬과 성서정과

앞서 얘기한 대로 예배의 생명력은 신학의 사변화의 안티테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배 전통 안에서 이에 대응하는,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의 생명과 실천을 제공하는 장치로는 어떤 전승, 제도 혹은 방법들이 항구적으로 구동되어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곧 말씀과 성찬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전자를 위해 교회는 기독교 역사적으로 그 제도적 장치로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정과를 오랜 동안 사용해 왔다. 또한 후자는 비록 초대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보편화 되었는지, 그 실행의 실제 비중이나 빈도 등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지만 점차 매우 이른 시기부터 예배 안에서 복음의 상징적 전

달 매개로 자리를 굳게 잡아 갔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중세에 이르러 과도한 성례전주의로 기울면서 중세의 왜곡을 부채질한 것 또한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시기에도 그 중요성은 간과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공동체를 존속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주요 매개로서 교회에 어떤 배경으로 기여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1. 성찬, 보이는 말씀에서 생명과 실천으로

### 1) 성경, 전통 및 현대 속의 성찬

성찬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 중세와 같이 때로는 지나친 왜곡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갖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진행되어 가면서 교회 안에서 성찬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마치 예배는 성찬[미사]이 전부인 것처럼 인식될 만큼 오랜 기간 동안 예배의 중심을 차지하여 왔다. 따라서 성찬의 원리와 정신은 곧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 행위인 예배의 함의를 좌우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는 또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나 지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성찬은 신약성경에는 네 곳에서 그 제정에 관한 기사를 담고 있다.(마26:26-28; 막14:22-25; 눅22:17-20; 고전11:23-26)

로렌스 스투키는 그의 책 「성찬, 어떻게 알고 실행할 것인가?」에서 성찬의 배경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차지하는 성찬의 비중을 부각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주요 매개였다고 본다. 따라서 성찬을 통해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와 연계된다는 확신은 정당하지만 이것이 협의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즉 성찬은 그의 전 생애 동안 발생한 사역의 주요 매개였던 식사들과의 연속

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그 정신들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sup>13</sup>

예수와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했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았던 문둥병자들, 불의하 였지만 끝에 가서는 회개한 삭개오 등, 사회 전 분야의 사람들에서부터 아예 거절당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었다. 예수의 식사는 사회적 격차를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관심의 범위가 지 극히 큼을 보여주는 것이었다..죽으시기 전 예수의 다락방 식사는 이전에 보도된, 예수께서 참여 하신 모든 먹고 마심의 기록들과 분리해 놓고 볼 수는 없다..부활 후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의 식사와는 더더욱 분리될 수 없다..성찬은 하나의 잔치이고 거기서 우리는 부활의 주와 함께 의로운 왕국에 대한 희망을 실현한다.

말하자면 성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주요 방식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성찬, 좀 더 엄밀히는 식사와 그의 전 생애 동안의 사역은 긴밀히 유관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예수 자신은 바로 성찬의 주제였으며 성찬을 통해 그의 구원 사역의 핵심적 주제들이 표현되고 실행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성경을 넘어서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등장한 디다케(*Didache*) 문서는 성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희소하지만 당시의 성찬의 의미나 위상을 엿보게 하는 자료이다. 이 문서는 오늘날에 와서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성찬기도의 일부분으로 복원하여 사용할 정도다.<sup>14</sup> 2세기 중엽의 성찬 예배

13) Laurence Hull Stookey, 「성찬, 어떻게 알고 실행할 것인가?」, 김순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34-36.

14) W. A. Jurgens, ed, *The Faith of the Early Fathers*, vol 1, (Collegeville, MN: The Liturgical Press, 1970), 1-6. 기록연대는 1세기말에서 2세기 초 혹은 말경의 문서로 봄.

「제1변증론」은 비록 간략하기는 하지만 예배의 전체적인 틀과 내용을 묘사해 주는 중요한 문서이다. 설교와 함께 수반되는 성찬식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두고 적지 않은 학자들이 2세기 중엽에 이미 성찬은 교회 안에서 예배의 통전적 일부로 위치하고 있었다고 본다.<sup>15</sup> 3세기 초의 문서인 「사도전승」(Apostolic Tradition)은 앞서의 「제1변증론」과 달리 성찬식 순서나 기도 내용이 상세하여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다.<sup>16</sup> 이 자료 속의 성찬기도는 오늘날 여러 진영에서 초기 교회의 성찬기도 모습이라고 간주되고 있으며 현대 예배서들 안에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후 4세기 말의 문서인 「사도헌장」(Apostolic Constitutions)의 예배는 다소 장황하고 복잡해져가기 시작한다.<sup>1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두고 초대교회의 순수성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초대교회 후기에 교회의 성찬 안에 담긴 신학적 의미들이 제시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종교개혁자인, 루터, 츠빙글리, 그리고 칼빈 등 모두가 당대 그 어떤 사안보다도 성찬을 두고 심각한 논쟁을 벌였던 것은 그만큼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을 반증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반드시 말씀과 성찬의 연합, 즉 성경의 들음과 설명,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말씀(the Word)의 땀, 곧 성찬 - 그가 이것을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심 - 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매주일 성찬을 강조한 루터는 초기에는 심지어 기독교계 전체가 매일 성찬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루터와 논쟁을 벌였던 츠빙글리도 성례전을 소홀히 하거나 없었다고 하는 일부 견해는 신

15) Bard Thompson,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1), 8-9. 유스티누스의 제 1 변증론 65장, 66장, 67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150년경에 다음과 같은 예배가 드러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16) 이 문서는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었을 것이 분명하나 현재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번역본들에 기초한 것이다. Thompson,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es*, 20-23.

17) 남호, 「초대기독교예배」(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01), 106-20 등에 수록되어 있다.

중을 요한다. 그는 성례전이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실제적인 역사의 사건을 증언하며,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함께 먹음을 기억하게 하는 반지라고 보았다. 칼빈이 그가 사역하던 제네바를 떠나 잠시 스트라스부르에 망명해야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성찬에 대한 그의 강한 강조가 지역 행정관들과 마찰을 초래하게 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고 보는 것은 널리 알려진 견해이다.<sup>18</sup>

오늘날 주요 개신교회 전통들, 즉 연합감리교회(미), 미국장로교회, 미국루터교회, 및 미국성공회의 예배를 보면 4중 구조라는 공통적 특색을 띄고 있는데 이는 성찬의 비중과 무관치 않은 변화이다. 개신교 주요 전통들, 특히 미국장로교회(PCUSA)와 연합감리교회(UMC)의 구조는 분명히 도입(entrance), 선포와 응답, 감사와 나눔, 파송(연합감리교회) 등으로, 혹은 모임, 말씀, 성찬, 파송(미국장로교회) 등으로, 이른바 4중구조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감사와 나눔(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성찬(미국장로교회) 등이 바로 성찬을 뜻한다. 루터교회나 성공회의 경우, 명확히 4중 구조로 나누어 각각에 명칭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다른 교파의 구조 및 내용적 특색과 일치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결국 오늘날 주요 개신교회 예배의 특색이 성찬의 비중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예배서의 내용이 곧바로 '예배는 곧 성찬예배'라는 등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성찬지상주의를 경계해야 함은 물론이다.<sup>19</sup>

18) Gordon S Wakefield, 「예배의 역사와 전통」, 김순환 역 (서울: CLC, 2007), 95-96, 105.

19) *The United Methodist Book of Worship* (Nashville, TN: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92), 15(이하 UMBW); Theology and Worship Ministry Unit for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nd the Cumberland Presbyterian Church, *Book of Common Worship*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3), 46(이하 BCW); The Episcopal Church, *The Book of Common Pray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355-99(이하 BCP); *Lutheran Book of Worship*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92), 57-76(LBW).



## 2) 성찬의 의미: 구원사건의 아남네시스 장치

앞서 성찬의 역사적 전거들에 대해서 보았지만 그것이 왜 오늘의 예배에서 큰 의미를 여전히 가진, 중요한 장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크게 몇 가지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희생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행한 성찬 제정의 사건에서 자신이 바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런 점은 구약의 희생 제물을 통한 속죄와 의미 상 연결되어 있다. 특히 ‘언약’, ‘새로운 언약’ 등의 표현은 구약의 동물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첫 언약이 체결되고 또 기억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새로운 언약의 체결을 의미하면서 또 그것의 기념이 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막26:28; 막14:23; 눅 22:19-23; Cf 히9:18-22) 둘째는 그의 십자가 희생이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기억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린도전서 11장 26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 ‘전하다’로 번역된 원어, *καταέλλω*는 ‘알리다’ ‘선포하다’ ‘선언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이 행위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 곧 그의 구속의 사역을 세상에 선포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이 성찬의 주요한 특징이 무엇보다도 그것의 의미의 구현을 위해서는 행위(action)에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것이다. 눅22:19에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적고 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번역은 NIV의 “do this in remembrance of me”가 더 가까운 번역이라 볼 수 있다. 즉 ‘기념’ 속에서 이것을 ‘행하라’라는 명령이다. 더구나 여기서 기념이란 단어의 원어, *ἀνάμνησις*가 단순한 지적인 회상이 아니라 과거 사건의 실제화라는 뜻이

담긴 말이기 때문에 두 단어 모두에는 행위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더구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성찬 제정사는 바울이 전수받은, 그의 성찬신학의 일면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는 실천성에 대해 특별한 시사들이 발견된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당시 교회는 분쟁의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고전 1:10; 6:1,6, 11:18, 12:25) 바울은 특히 이 분쟁의 문제를 성찬의 유효성과 연결시켜 다루고 있다. 그는 11장 17절에서 그들이 예배를 위해 '모일 때'에 분쟁이 있음을 지적하고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고 질책한다.(18)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에서 행하는 성찬은 더 이상 성찬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20)<sup>20</sup> 이 당시의 성찬은 온전한 식사였는데 그 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한 채 자기들만의 잔치로 삼은 것에 대한 책망이었다. 당시 로마 시대는 휴일이 아닌 주일에 부유한 사람들이 먹고 마신 후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야 일터에서 돌아와 성찬에 참여하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배고픈 채 남겨진 현황을 바울이 호되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다.<sup>21</sup> 이와 관련하여 윌리엄 알 크라켓(William R. Crockett)과 에이치 드 루박(H. de Lubac)은 11장 29절에 나온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라는 말을 그리스도의 몸인 형제와 자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결여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았다.<sup>22</sup> 이는 성찬이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알아 왔던 것보다도 훨씬 더 수평적 차원, 즉 대사회적 실천과 유관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만하다.

따라서 성경은 성찬에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한 점을 시사한다. 1) 성찬

20)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표준새번역개정)

21) 고린도전서 11:20-22.

22) William R. Crockett, *Eucharist: Symbol of Transformation* (New York: Pueblo Publishing Company, 1989), 107-08.

실행의 중심적 목적과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한 기념인 점과 2) 성찬은 무엇보다도 지적인 설명이나 논변 등이 아닌, 매우 행위적인 방식을 통한 선포라는 점이며 3) 그리고 이 성찬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즉 은총의 수단으로서 개인적으로 경험되는 차원을 넘어서 대사회적 차원이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 속에서 성찬의 핵심적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디다키」를 보면, 특히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기도에 보면 그 첫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거듭 그를 통하여 기도가 바쳐지고 있다.

먼저 성찬에 관하여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사를 드리시오. 먼저 잔에 관하여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당신의 아들이신 다윗의 거룩한 포도나무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이 당신께 영원히 있나이다.” 떼 떡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생명과 지식을 인하여 아버지,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당신의 것이나이다.”

「제1변증론」은 특히 성찬식 제정사 소개는 이 예배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이 성찬 제정사는 물론 복음서에서 나온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보통의 떡과 포도주와 같이 받아서는 안 되는 까닭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살과 피를 갖게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시한다. 그 외에도 「제1변증론」은 성찬식 후 남은 것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제들이 남은 떡과 포도주를 예배에 참석치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부유한

사람들은 헌물을 드려 그것을 고아, 과부, 아픈 자, 갇힌 자, 그리고 나그네들에게 전해 주는 내용을 증언하고 있다.<sup>23</sup>

「사도전승」은 그 내용에 보면, 성찬기도의 첫 부분인 시작대화를 마치자마자 곧 이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 그의 정체성(구조, 대속자, 하나님의 사자)의 언급, 그의 성육신 및 사역과 승리의 부활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제정사를 언급한 뒤 마지막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께 찬미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며, 그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가 당신께 있어지기를 성령과 더불어, 당신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구하나이다.”라는 송영(頌榮)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위치를 확인하며 마친다.<sup>24</sup>

「사도현장」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이 흐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심성은 지속되고 있음을 본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찬기도의 서도 직후에 다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며 기도한다.<sup>25</sup>

당신은 독생자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끌어냈으며, 그 독생자를 당신은 중재자 없이 홀로 모든 시대에 앞서 당신의 뜻과 능력과 비길 데 없는 선함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는 당신의 독생자이며,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지혜이며, 모든 피조물 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당신의 위대한 목적을 위한 천사이며, 당신의 대체사장이고, 모든 이성적이고 감각적인 자연계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며,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의 안에 존속합니다.

23) Jurgens, ed. *The Faith of the Early Fathers*, 55.

24) Thompson,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es*, 20-23.

25) 남호, 「초대기독교예배」, 106-20.

이런 비중을 가진 성찬의 중심 주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다. 루터의 성찬에 관한 입장을 로렌스 스투키는 다음과 같이 옮긴다.<sup>26</sup>

부활의 그리스도는 우리 주변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계시며 창조 안에 있는 만물을 함께 붙드신 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죄로 덮여 있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 ... 우리는 세상 안에서 베일 사이로 희미하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볼 뿐이다. 성찬상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 베일은 잠시 거두어진다. 빵과 포도주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선한 모든 것 속에서 매일 발견해야 할 그리스도의 임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투명성을 갖기 위해 자꾸만 주의 식탁으로 되돌아 와야 하는 것이다.

츠빙글리도 비록 그의 성찬임재양식에 관한 견해의 차이로 루터와 심각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일깨운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칼빈은 특별히 성령의 역할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경험을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지상의 그리스도의 몸(교회)은 부활하신 주님의 천국의 몸과 연합하게 된다고 보았다.<sup>27</sup>

이런 정신들은 사실 오늘날의 예배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성찬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남네시스의 장치다. 이들은 성찬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 그리고 구속사건의 기념(아남네시스)의 현실화를 위해, 더 나아가서 예배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장치로서의 성찬 예문들을 정교하게 개정하였다. 특히 성찬식의 중심적 요체인 성찬기

26) Stookey, 「성찬, 어떻게 알고 실행할 것인가?」, 75-76.

27) Stookey, 「성찬, 어떻게 알고 실행할 것인가?」, 74-80.

도(대감사기도)를 전통에 기초하여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연합감리교회(미), 미국장로교회, 루터교회(미), 그리고 미국성공회 등의 성찬기도의 특징을 보면, 첫째, 구원사를 담아냄으로써 예배의 정체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둘째, 그 구원사의 핵심적 사건이요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셋째, 성찬의 언어와 실행 속에서 그와의 실체적 만남의 경험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sup>28</sup>

성찬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사건에 대한 아남네시스이다. 이것은 예배에서 어떤 교리적 논증의 방식이나 사변적 설명을 통해 사용되지 않았다. 오직 전승의 언어와 행위를 충실히 실행하는 것으로 교회 공동체를 형성시키고, 유지시키고, 확장시켜 나갔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담고, 또 그의 말씀을 담는 것을 중요한 전승의 기치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오늘의 교회는 이런 예배 전승 속에 담긴 생명의 장치, 실체적이고 경험적 신앙의 장치에 대해 새롭게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 2. 성서정과, 들리는 말씀에서 생명과 실천으로

예배 안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것의 실천적 차원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또 다른 장치는 성서정과라고 볼 수 있다. 성서정과(Lectioary)는 무엇보다도 교회력과 긴밀한 연관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경축하는 달력으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탄생, 주현, 사역, 고난, 죽음, 부활, 승천, 및 오순절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성서정과는 이들 주제에 해당하는 성경본문들을 각각 발췌

28) BCW, 69-73.; UMBW, 36-8; LBW, 89-91; BCP, 361-63.

하여 할당해놓은 일종의 성경봉독 목록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예배 중에 공적으로 성경을 읽기 위한 자료이면서 동시에 설교의 본문이 되기도 한다. 최근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는 개정공동성서정과(Revised Common Lectionary)는 1년을 주기로 매 주마다 기독교론 주제들을 배열하였으며 3년을 지내고 나면 성경 전체를 대부분 섭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 1) 성경, 전통 및 현대 속의 성서정과

존 브로코프(John R. Brokhoff)에 따르면 성서정과의 기원은 구약의 회당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미 율법서와 예언서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매주 단위로 읽었다고 말한다.<sup>29</sup> 누가복음 4장 16-17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라고 기록하고 있다. 회당에서 그 날에 읽도록, 그리고 설교하도록 정해진 본문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전통이 기독교회에 전수되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가능성은 분명하다. 일부 학자들은 심지어 마태 및 마가복음 등도 교회력에 맞춘 성서정이라고 본다. 즉 1년 주기의 예배 진행에 따라 배열된 말씀이라는 것이다.<sup>30</sup>

역사적으로 성서정이가 교회력의 주제를 반영해 왔다는 점에서 볼 때 2세기 중엽의 부활절 관련 문서들은 당시에 그에 맞는 성서정과 사용이 또한 있었음을 추정하게 한다.<sup>31</sup> 성경을 여러 군데 공적으로 읽었다는 구체적

29) John R. Brokhoff, *Lectionary Preaching Workbook Series IV, Cycle 4* (Lima, OH: The CSS Publishing Company, 1994), 5; Allmen, 「예배학원론」, 130.

30) A. Allen McArthur, *The Christian Year and Lectionary Reform* (London: SCM Press, Ltd, 1958), 44에서 재인용.

31) 부활절에 관한 성경의 근거는 고린도전서 5:7-8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요 2:13:11:55

증거는 4세기경의 「사도헌장」(The Apostolic Constitutions)에도 나타난다. 이 문서에서 나타난 예배 안에는 5개의 본문으로 된 성서정과가 들어 있다. 그 내용들은 모세오경, 예언서, 서신서, 사도행전 및 복음서 등으로 되어 있다.<sup>32</sup> 그 외에도 성서정과의 존재를 보여주는 고대의 자료로서는 388년 크리소스톰이 안디옥에서 행한 요한복음에 관한 설교를 들 수 있다. 그 설교에서 크리소스톰은 회중들이 주일이나 안식일에 읽혀질 복음서를 집에서 미리 읽고 묵상하여 준비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

복음서 말씀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무겁거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니 나의 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오...그런데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주의 첫 날에 혹은 심지어 안식일에 여러 분 가운데 읽혀져야 할 복음서의 부분을 손에 들고 그 날이 오기 전에 집에 앉아 그것을 다 읽고 그 내용을 주의 깊게 숙고하고 무엇이 분명하고 애매한지, 그리고 무엇이 모순되어 보이거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각 부분을 잘 검토하며, 또 각 요점이 한 마디로 무엇인지 다 마치진 뒤 가서 그것이 봉독되는 것을 들으십시오. 이런 열정으로부터 적지 않은 유익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sup>33</sup>

---

등은 부활절(용어상으로는 유월절을 여전히 쓰고 있지만) 지키기에 관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16:8에는 오순절 지키기에 관한 기록도 보인다. 성경 외의 근거들은 Thomas Talley, *The Origins of the Liturgical Year* (Collegeville, MN: The Liturgical Press, 1986), 5-6 참조.

32) William Maxwell,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London, New York, Toronto: Oxford Univ. Press, 1936), 27.

33) Philip Schaff, ed., "The Homilies of St. John Chrysostom," in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dmans Publishing Company, 1983), 38.



중세교회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성서정과는 사용되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예벳사 성서정과(6세기), 비잔틴 성서정과(7세기경), 로마교회 성서정과(7세기), 예루살렘 성서정과(8세기), 룩셀의 성서정과(7,8세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sup>34</sup> 로마 교회가 예배를 표준화 하던 시기에 샤를마뉴(Charlemagne) 대제는 수도자 알쿠인(Alcuin)을 통해 성서정과 역시 표준화하여 유럽전역에 소개하였다.<sup>35</sup>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성서정과에 대한 입장은 중세에 대한 반동적 성격이 강하다. 희생제의의 상징인 제단, 인간적 허세를 상징하는 오르간, 예복, 그리고 중세의 왜곡된 교리적 체계에 따라 만들어진 교회력 등을 배척하면서 동시에 성서정과를 폐기하였다. 다만 루터와 토마스 크랜머 같은, 비교적 보수적인 개혁자들은 약간 바꾸어 이를 보존하였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반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트렌트 공의회에서 성서정과를 정식 채택하여 오다가 1963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 새로 개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후 주요 개신교회의 성서정과 출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최근 개신교 성서정과인 「개정공동성서정과」는 비교적 비예전적인 개신교회들도 참여한 것으로서 그 출현은 1983년에 공동본문자문위(the Consultation on Common Texts)라는 협의기구가 제작한 공동성서정과(Common Lectionary)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후 수십 개 교단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의 내용과 형식을 갖게 된 것이다.<sup>36</sup>

34) Allen McArthur, *The Christian Year and Lectionary Reform* (London: SCM Press, LTD, 1955), 41-64. 정장복, 「교회력과 성서정과」(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64-65에서 재인용.

35) Brokhoff, *Lectionary Preaching Workbook Series IV*, 5. 그 외에도 밀란의 암브로우스, 히포의 어거스틴 등이 성서정과를 사용한 예에 대해서는 Cyrill Vogel, *Medieval Liturgy: An Introduction to Sources* (Washington, DC: Pastoral Press, 1986), 303 참조.

36) Hoyt L. Hickman and others, *The New Handbook of the Christian Year* (Nashville: Abingdon Press, 1986), 28-30.

## 2) 성서정과: 구원사건의 케류그마 장치

이미 살펴본 대로 성서정과의 근거라고 볼만한 자료들 안에는 매우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소위 모든 성서정과의 초점ियो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다. 신약의 누가복음 4장을 보면, 회당에서 그날 봉독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사야서를 드리자 그 가운데서 찾아 읽고 '성령이 임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 지금 자신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씀한다.(눅4:18-21) 또한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하에서 바울이 언급한 새로운 명절인 유월절(부활절)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이 자명하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전5:7-8)라고 한 내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새 명절의 주제임을 암시하고 있다.

스페인의 수녀, 에게리아(Egeria)가 4세기 말(381년에서 384년 사이)에 예루살렘 순례를 다녀와 기록한 일기에서 예루살렘 부활절 어간, 즉 고난주간 시작부터 부활주일까지 진행되는 매 예배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일기는 특히 명절기간 동안 매일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나스타시스(Anastasis, 부활의 장소에 있는 부활교회)에서 시작됨을 알린다. 특히 여기서 찬송, 시편, 교창이 불리고 기도가 행해지는데 이어 '집자가가 세워져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면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에게리아는 이때 절기에 맞게 정해진 구절들이 이미 활용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언급을 하는데 물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중심이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내가 가장 인상을 받은 것은, 밤기도든, 새벽기도든, 정도기도나 세 시 기도든, 또는 저녁기도든 언제나 적절한 시편과 교창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알맞고 적절하며 관련이 있다.("여행기" 24-25)...수요일(유다의 배신일로 간주)은...유대인에게 가서 주님을 배반하고 받아야 할 돈을 흥정한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한 구절을 읽는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네가 그것을 듣고 눈물을 흘렸을 그런 방법으로, 신음하고 슬퍼한다...<sup>37</sup>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교회가 안정적인 위치를 갖게 된 뒤, 그러나 아직은 교회 안에 중세 신학의 왜곡된 현상들이 본격화되기 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력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성인들과 마리아 관련 축일로 얼룩진 중세와 달리 적어도 초대교회의 순수한 전통이 살아 있던 시기로서 이때의 신앙의 확고한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반영하고 있다. 조지 김슨은 그의 책, 「그리스도력 이야기」에서 중세에 접어들면서 예배와 경건 행위 속에 성인숭배나 마리아 숭배 가르침(mariology)이나 순교자 관련 가르침(martyrology) 등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아갔는지의 과정과 그 정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sup>38</sup> 종교개혁자들의 부정적 반응은 바로 이런 중세의 경향에 대한 반동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성서정과와 회복은 종교개혁자들이 처했던 시대적 배경과 다른 가운데서 나온 것이면서 그 뿌리를 초대교회의 관행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1983년의 공동성서정과(CL) 출현과 그 이후 9년간의 시험사용 기간을 거쳐 1992년에 최종적으로 나온 개정 공동성서정과(Revised Common Lectionary)는 중세의 미신적이고 초점을

37) 남호, 「초대기독교예배」, 174-77.

38) George Gibson, *The Story of the Christian Year* (Nashville: Abingdon Press, 1945), 113-18.

벗어난 경축을 극복하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 중심의 경축을 회복한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미국연합감리교회(UMC), 미국장로교회(PCUSA), 미국성공회(AMC), 및 미국루터란교회(ALC) 등 주요 개신교회들이 이 성서정과는 사용하고 있다.<sup>39</sup>

내용적으로 교회력은 두 개의 주기로 형성된다. 즉 성탄절주기와 부활절주기이다. 세부적으로는 이 둘은 6개의 기간으로 나뉘는데 첫째, 대림(대강)절 기간은 성 안드레의 날(11월 30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부터 시작하며 네 번째 대림(대강)주일로 마쳐진다. 둘째, 성탄절 기간은 성탄절(성탄 전야부터 25일까지), 성탄절후 기간(성탄절 후 첫 주, 신년전야 및 신년기념일, 성탄절후 두 번째 주일, 그리고 1월 6일의 주현절이 포함)으로 구성된다. 세 번째, 주현절후 기간(최고 9개의 주일이 포함되며 세부적으로는 주현절 후 첫 주, 주현절 후 둘째 주 등으로 불리고 그 중 첫 주는 주 세례일, 마지막 주는 산상변모주일이라 부름)이 온다. 네 번째, 사순절 기간(부활 주절 7주 전 수요일인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 사순절 첫 주, 둘째 주 등으로 이어져 여섯 번째 주일은 고난/중려 주일임)이 온다. 마지막 주기는 고난주간으로 지켜지면 특히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및 부활주일은 년 중 최고의 명절이다. 다섯 번째, 부활절 기간(부활절을 부활절 첫 주로 시작하여 40일째에 해당되는 승천일 거쳐 일곱 번째 주일, 즉 성령강림절로 마칩)이 온다. 여섯 번째, 성령강림(오순)절후 기간이다. 이 시기는 성령강림절후 첫 번째 주일로 시작하여 다음 해 대강절 기간 전까지 이어지는데 특히 성령강림절후 첫 번째 주일을 삼위일체주일이라고 부르며 마지막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Christ the King)이라고 부른다.<sup>40</sup>

39) Hickman and others, *The New Handbook of the Christian Year*, 13-14, 30. Cf. LBW 1979; BCW, 1993; UMBW 1992.

40) Hickman and others, *The New Handbook of the Christian Year*, 13-4.

#### IV. 결론: 생명을 위한 신학, 체험과 실천을 위한 신학, 그리고 제언

기독교 신학의 주된 관심은 이성적 체계화나 인간의 지혜의 정련화, 그 이상이다. 하나님의 실재에 대한 접근이며, 그것의 설명이면서, 좀 더 정확히는 그것의 증언이어야 한다. 만일 신학이 이런 실재와의 거리를 떼어 놓고 그 실재에 관하여 인간의 지식적 차원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의 진위를 가르거나 심도를 강화하는 경쟁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이미 허위에 그치고 말 것이다. 지금까지 본 논문은 기독교 신학의 실재의 재발견과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의 지속적 재현을 위해서 비록 역사 속의 여러 굴절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시대부터 예배 안에 존속해온 장치로서의 성찬과 성서정과를 탐구해 보았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정체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여러 왜곡 속에서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저력이기도 했다.

성찬은 역사 속에서 다름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사건에 대한 아남네시스의 매개였다. 이것은 어떤 교리적 논증이나 사변이 아닌, 행위로 복음을 전하는 장치였다. 오늘의 교회가 성찬을 새롭게 조명해야 하는 것은 중세와 같이 성찬이 마치 어떤 마술적 힘이나 신비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때문이 아니다. 그 안에는 전통이라는 채널을 통해 보존되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의 요약이 들어 있고, 역사 속 교회들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상징행위들 속에 녹여 담아온 복음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의 실행을 통해 그 어떤 이론적 논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실재가 전달될 수 있으며 전인적 양식으로 구속사의 경험 속으로 나아가게 한다.

성서정과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 중 다른 한 축과 같이 성찬의 다른 편

에 서서 구속사의 케류그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매개하는 역할을 해 온 것이다. 그것은 일정의 주기를 따라, 즉 매주 혹은 연중 패턴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건을 재현시키는 장치로 역사 속 예배 안에서 기능해야 할 것이었다. 만일 성찬이 라틴어 안에 갇히고, 사제의 독점적 집전에 맡겨지고, 그래서 점점 더 성찬의 본의가 왜곡되고 미신화 되었을 때 일반 대중의 언어로 구속사가 성서정과의 운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예배 안에서 전해질 수만 있었다면 아마도 교회 역사의 어둠은 훨씬 덜 심각하였을 것이다. 오늘의 교회는 과도한 이성화를 뛰어넘어 전승의 언어 체계와 행위를 담은 성찬과 성서정과의 충실한 존중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더욱 굳게 형성하고,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의 모색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이다. 그런 전승 안에 담긴 생명의 씨는 다름 아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일은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순환.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실천신학적 성찰과 제언.” 「신학과 실천」 26/1 (2011 봄): 7-34.
- 남호. 「초대기독교예배」.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01.
- 정광덕. “제2의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한 칭의와 성화.” 「성경과 신학」 29 (2001): 335-71.
- 정장복. 「교회력과 성서정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최갑중. “개혁주의생명신학의 당위성과 방향.” 「생명과 말씀」 1 (2010 봄): 87-118.
- 한국웨슬리학회 편. “믿음에 의한 칭의.” 「웨슬리설교선집」 1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한영태. 「웨슬리의 조직신학 II」. 서울: 성광문화사, 2008.
- 한철하. “칼빈신학과 신학공관.” 「칼빈의 신학과 한국교회의 과제」.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2002.
- Allmen, J.-J. von. 「예배학 원론」. 정용섭 외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9.
- Guthrie, Shirley C. 「기독교신학입문」. 김영선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8.
- Lohse, Bernhard. 「마틴 루터의 신학: 역사적, 조직신학적 연구」. 정병식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 Scott, William A. 「개신교 신학 사상사」. 김쾌상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 Stokey, Laurence Hull. 「성찬, 어떻게 알고 실행할 것인가?」. 김순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Wakefield, Gordon S. 「예배의 역사와 전통」. 김순환 역. 서울: CLC, 2007.
- Board of Publication, Lutheran Church in America. *Lutheran Book of Worship*.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92.
- Brokhoff, John R. *Lectionary Preaching Workbook Series*. IV: Cycle 4. Lima,

- OH: The CSS Publishing Company, 1994.
- Crockett, William R. *Eucharist: Symbol of Transformation*. New York: Pueblo Publishing Company, 1989.
- Gibson, George. *The Story of the Christian Year*. Nashville: Abingdon Press, 1945.
- Hickman, Hoyt L., Don E. Saliers, Laurence Hull Stookey, and James F. White. *The New Handbook of the Christian Year*. Nashville: Abingdon Press, 1986.
- Irenaeus. "Irenaeus against Heresies." In *The Ante-Nicene Fathers*, Vol. 1, PP 315-567.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7.
- Jurgens, W. A., ed. *The Faith of the Early Fathers*. Vol. 1.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70.
- Maxwell, William.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London, New York, Toronto: Oxford Univ. Press, 1936.
- McArthur, Allen. *The Christian Year and Lectionary Reform*. London: SCM Press, Ltd, 1955.
- Schaff, Philip, ed. "The Homilies of St. John Chrysostom." In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3.
- Talley, Thomas. *The Origins of the Liturgical Year*. Collegeville, MN: The Liturgical Press, 1986.
- Thompson, Bar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1.
- Presbyterian Church(U.S.A.). *The Book of Common Worship*.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3.
- United Methodist Book of Worship Committee. *The United Methodist Book of*



*Worship*. Nashville, TN: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92.

Vogel, Cyril. *Medieval Liturgy: An Introduction to Sources*. Washington, DC: Pastoral Press, 1986.

## 예배의 전통 속에 담긴 개혁주의생명신학적 장치, 성찬과 성서정과

김순환(Soon Whan Kim)

서울신학대학교, 예배학

기독교 신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 만일 신학이 이와 같은 근본적 사실을 망각하고 단순히 지적이고 도덕적인 논구에만 머물러 있을 때 이는 큰 실패를 자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예배 안에는 복음의 효과적인 현재화를 보장하는 두 개의 중요한 전통, 곧 성찬과 성서정과가 있어왔다. 성찬 안에는 행위로 된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었으며 그를 통해 참여자들이 성례전을 시행하는 가운데 구속사는 현재화되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성찬을 더욱 중시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과 이야기가 그 형식과 내용 안에 담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서정과는 이성적 기능을 통해 이런 구속사를 확인하는 두 개의 바퀴 중 하나와 같다. 이는 연중 교회력 절기에 맞는 성구들을 지속적으로 읽고 설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건을 환기시키는 체계였다. 회중이 외국어인 라틴어로 인해 성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고 또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에 큰 오류를 피할 수 없었던 중세와 같은 시기에 만일 성서정과가 예배에 적절히 채용만 되었더라면 그런 어두운 상황 타개에 유효한 해결책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오늘날의 예배에서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소통의 다각적 채널을 무시하는, 그래서 복음의

풍부하고 균형 잡힌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하는, 너무 지나친 지성주의에 빠져 있는 현실에서 이런 소중한 전통은 그 중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의 개신교회는 생명신학의 회복을 위해서 이들 두 개의 소중한 전통, 즉 성찬과 성서정과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개혁주의생명신학, 예배전통, 성찬, 성서정과, 복음

Abstract

## Traditional Legacies for Reformed Life Theology in Liturgical Tradition, the Eucharist and the Lectionary

Soon Whan Kim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Worship Theology

Christian theology should be the effective means witnessing to the living God. If theology forgets this essential idea, and stays solely in intellectual or domatic debates, it would end up in a grand failure. Since the early churches, in fact, there have been two significant traditions that safeguards the vital actualization of the gospel in worships, such as the Eucharist and the lectionary. In the Eucharist, there has been embedded the life of Jesus Christ through whom the salvational work is enacted in the participants when the sacrament being celebrated. One of the significant reasons why today's churches should pay higher regards to the Eucharist is because the salvational events of Jesus are loaded in its form and contents, and so His salvation can be strongly being valid in its meaningful celebration. Lectionary is like one of the two wheels to confirm this salvational history by its rational aspects. It was a system that constantly recurred the Christological events in reading and preaching the lessons proper to each theme based on the liturgical seasons throughout the year. In the period like medieval age when the congregation couldn't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Eucharist due to the Latin language, which was foreign to them, and thus they couldn't avoid religious errors in their lives, the lectionary would function as a valid solution to such a dark situation if it was properly adopted in liturgical practices. In the present context that most protestant churches fell in too excessive intellectualism disregarding the multi-sensical channels in communication, and facing the failure of the rich and balanced experience of the gospel, these two precious legacies reveals their values again. From this point of view, current protestant churches should have the keener concern for the Eucharist and lectionary in the recovery of living theology.

Key words: Reformed Life Theology, liturgical tradition, eucharist, lectionary, gospel

논문 접수일:2012년 1월 26일 수정 접수일:2012년 3월 22일 게재 확정일:2011년 4월 15일